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악업 무너뜨리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

염불과 마음공부 다른점

문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으레 이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귀 의하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수많은 제 불보살 가운데 특히 이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귀의해 온 데는 어떠한 까닭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 공부와 무엇이 다른지요. 좀 자세히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우리가 매사 생활해 나가는 데에 내 한마음에서 여러 가지의 마음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미타라는 이름은 정신세계를 말하고, 관세음은 현상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해서 깨달아 돌아 아닌 도리를 알고,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나투는 방법까지도 체득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이미타불이 따로 있다고 바깥으로 깰린다면 아니되겠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때에 따라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형이 되며, 때에 따라서는 사위가 되고 그러는데,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관세음이라 하고,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이미타라 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일 때 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알아 합니다. 그래야 타득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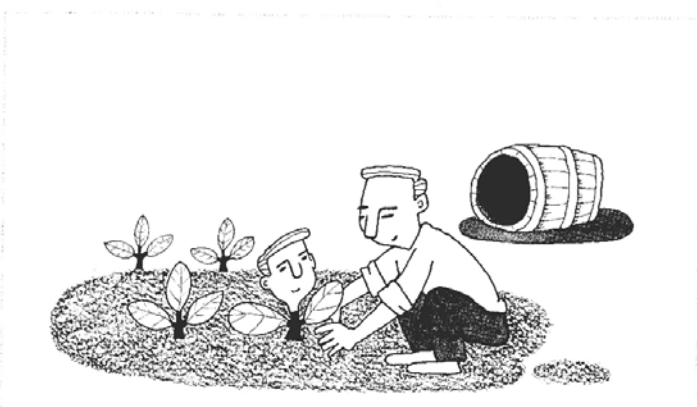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은 채없어 우주 밖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에 갇힌 마음 벗어나야만 나를 굴릴 수 있죠”

이름일 뿐이지 과거 정신세계나 현상세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몸이 어디 붙어있습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장갑을 낀 손이 어떻게 장갑 낀 것과 붙어있습니까? 장갑을 끼었으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속에 이미타불도 들어 있고 관세음보살도 들어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이미타불의 행과 관세음보살의 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붙어 아니게 이 모두가 하나 하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까닭에 인체가 다 가설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연중에 의해서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가설 말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넓은 것이 있으면 좁은 것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타나 관세음보살이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이미타가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이미타불을 바깥으로 찾으려 할 때면 그건 공부하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공덕이 하나도 없고 이익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도리는 참나를 발

독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찌 정신세계를 간파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까?

천도하면 운회 벗어남니까

문 사람의 육신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공부하기가 어렵고, 대개의 경우는 몸 떨어질 때의 의식수준에 따라 운회의 길에서 헤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몸 떨어지고 있는 조상의 천도식이란 무엇이며, 그 천도식에 조상들께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답 사람이 살면서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보가 생기고 선업을 지으면 선업의 보가 생기는 법. 다시 말해서 몸은 떨어지지만 인연되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몸 떨어지면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의 차원으로 죽어서도 일차원이면 일차원대로 있고 이차원이면 이차원대로 있어요.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물질로 한 물건이 나온다면 수만 가지로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딪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지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내기 이전 마음 깨달아야 물리터져

그리고 얘기한 바와 같이 공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팔 나듯이 세상을 살아 나가는 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부드럽게 하며,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의 보를 받을 것이고, 악하게 남을 중오하고 원망하며 이간질해서 싸움이나 붙이고 사기나 일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악의 업보를 받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몸 떨어지면 그 상태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천도가 생긴 것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강을 건너려 해도 자기 몸이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며, 체가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상대도 체가 있는 줄 알고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죠. 허상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대로 깰리고 한 발짝도 못 건너가기 때문에, 아니 설사 건너갔다 하더라도 타 죽을까봐 불바퀴를 못 건너가기 때문에 천도가 생긴 것이며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장남을 이끌어 가는 도리가 있으므로 천도의가 생긴 것입니다.

공부중 특이한 경험 오는 이유

문 저희가 공부해 가는 도중에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갖가지로 능력이 나타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이한 정신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말하자면 공부가 익어서 그런 것인지, 혹은 아직 덜 익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험이 자주 오는 경우는 그 무엇으로 자신의 공부가 익어가는 줄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답 그것은 아까도 요약해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을 봤다고 해도 놓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정신세계의 특이한 경험을 했다 하여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내 마음 속에서 벗어내는, 즉 말하자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내 몸 속에 잔뜩 들어있는 악업·선업의 의식자체가 모습으로 화해서 나오는 것이니, 다시 거기에다 맡겨야만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에서 얼어지면 얼어질 때마다 땅을 딛고 일어나려고 해야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을 일러 말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거기에 맡겨야 하고, 또는 그러한 경계가 다가오면 오는데로 거기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거기에다 다시 되뇌야 하는 것입니다. '만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일심'이란 얘기가 있듯이 일심에서 만 가지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심에다 다시 놓고 일심 아닌 일심을 참구해야 합니다.

통박서 통을 굴린다는 뜻

문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통박에 나와야 통을 굴릴 수 있다고 말

씀하셨는데, 사랑적으로 그 말씀은 이치에 맞습니다만 실정의 경우에서 어떠한 경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 중에 통이란 무엇이고 통박은 무엇이며, 또 굴린다고 할 때의 굴리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답 통이라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고 하며 나라는 것을 세우고, 아집으로 억눌러 있는 사람을 통 속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상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 말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넓게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벗어나야만 나를 굴릴 수가 있지,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굴릴 수가 있었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갇혀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길도 아니요, 벗어나지 않는 길도 아니니 그럼 진짜 어떻게 하는 게 벗어나는 길인가요?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고 마음 속에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굴림이며 마음 속에

서 마음내기 이전 마음을 깨달아야 물리가 터지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속의 참 마음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그 때에 진짜 공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나와 물질세계의 내가 둘이 아니게 상응상조하면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불치병 고친다는데

문 현대의학으로도 나올 수 없는 병들을 한마음 도리로 낫는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주인공이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현대의학으로는 낫게 할 수 없는 임이나 백혈병, 또는 다른 기타의 병들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찾는 주인공이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낫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낫게 해준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항상 그렇게만 한다면 밖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낫게 해달라고 항상 빌어야 하니 말이예요.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 세세생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체가 없어서 너와 내가 말을 할 때 벌써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전자와 전자가 한 데 합쳐지는 순간이죠.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지는 순간에 어느 한쪽에 내가 불을 들어오게 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불을 들어오게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마음과 마음은 전기를 같이 붙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낫게 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네 마음 내 마음이 들어 언니 데서 붙어 나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낫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 열매가 열리고 있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면 상대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낫게 한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악업의 보도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요, 선보도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니 무너뜨리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람이지만 받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때리든지 안 때리든지, 육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하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익명의 실비부담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칭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생할 속의 불교 (179)

딱다구리가 나무에 구멍을 뚫듯이 그렇게...

“내 속에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인과로서의 입이 자꾸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놓고 놓아서 놓는 것마저도 없다 할 때까지 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게 공했다더라’ 하면서 놓으면 그냥 공으로 빠져 몰아지지를 않는다. 그러기에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닌데서 주인공 하나를 세워 놓고 전부를 주인공으로 몰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 빠져나갈 틈이 없이 몰고 들어가는 게 몰락 놓는 것이다. 그렇게 몰다 보면 마치 젓을 쥐어짜서 유선이 터지게 하듯이 답답해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썩 빠지고 오는 그것만 남게 몰아부쳐라. 그렇게 몰다보면 참나가 나온다.”

바퀴가 구르려면 중심축이 잡혀 있어야 한다. 뱀도 정중앙에 심봉이 딱 꽂혀 있어야 곡식을 갈아낼 수 있다.

닥아오는 일체 경계를 방학하라니 까 그냥 ‘무라, 무라’하고 만다면 심봉이 내 안에 중심을 하나 딱 세워 놓고 일체 경계를 그리로 몰아 놓고 들어가야 한다. ‘주인공! 네놈이잖아.’ 하며 ‘나’라는 주체 의식을 포기하고 일체를 거기에 맡길 때 비로소 방학하는 시작 된다.

놓으라고 하니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고 머리를 굴리려 한다면 그건 방학하지 아니라 사랑 분별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야 아무 소독이 없다.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 하는 꼴이라 끝내 물 맛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왕 놓고 갈 양이면 사랑 분별까지도 놓고 가야 한다. 이게 맞나 저게 옳나하는 그것까지도 주인공 몫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 작은 의정이 큰 의정이 되고 큰 의정이 나를 압도하면서 마침내 물꼬가 터지는 계기를 맞게 된다.

화살을 쫓 때 과거의 정중앙을 꿰뚫기까지 많은 연습을 해야 하듯이 놓고 가는 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냥 다 놓고 산다는 다짐만은 어림도 없다. 찰나찰나 닥아오는 안팎의 경계에서 즉각적으로 주인공! 할 수 있

이야 할 쪼기가 제대로 되기 시작한다. 마침내 정중앙을 관통하기까지 거듭 거듭 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 경계에 또 달리며 살아왔다. 보는 것 듣는 것, 접촉하는 일체 경계마다 사랑하고 분별하면서 회노애락의 잔치를 벌여온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시신을 안으로 돌려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면 오욕칠정의 주체인 ‘나’가 발 붙일 곳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마음은 점차 평안해지고 번뇌의 물결은 잦아들게 된다.

자꾸 밖으로 향하려는 시신을 안으로 돌려 놓는 ‘U턴’ 작업을 해 보자. ‘주인공, 너 만이 할 수 있어!’ 라든가 ‘주인공, 네 똥이네가 해결해!’ 하면서... 그러면 ‘나’는 절로 빠지게 된다. ‘나’가 빠져야 진정으로 ‘놓고 맡김’이 이뤄진다.

딱다구리가 나무 속에 박힌 벌레를 파먹을 때 어떻게 하던가? 주둥이로 한 자리를 계속 쪼아 마침내 구멍을 내고 벌레를 파 먹게 된다.

놓고 간다는 것도 그와 같다. 내 속 깊은 곳에 참나가 있다는 생각에서 딱다구리가 나무를 쪼듯이 계속 쪼아대야 한다. ‘어디 주인공이 있다면 모습을 드러내라!’ 또는 ‘참 나가 있다는데 얼 굴 좀 보자’ 하는 식으로 몰고 들어가야 한다. 놓고 맡김은 결국 참 나를 발견키 위함이니 그 길 말고는 달리 묘책이 없지 않겠는가.

물고 들어 갈 때는 사부처는 마음이어야 한다. 건성이어서도 안되고 뜨끈 미지근해서도 안된다. 물에 피가 배일 정도로 사부처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아서 사부처되도록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그리워해야 한다.

특 특 건드려 보는 정도로는 구멍을 낼 수 없다. 젓먹던 힘까지 다 기울여서 몰아쳐야만 반응이 온다.

놓고 가는 데도 맛을 볼 수 없다는 의심이 들거든 그것까지도 밀어 넣어라. 나오는 죽죽, 닥아오는 죽죽, 놓고 또 놓을 때 어느날 소식이 온다. 물꼬가 터 생수가 샘솟듯 용출하게 된다.

협찬 : 이진승